12일 광주일보사와 광주 대성학원이 공동 주최한 '2009 대학입시 설명회'에 참가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이영덕 대성학원 평가실장〈사진 오른쪽〉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서울대 수시 합격 23% 급증

올 80명…역대 최다

전남지역 수험생 중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가 매년 늘고 있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09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가운데 전남 출신은 80명으로 지난 해 수시모집 합격자 65명에 비해 23% 증가했다.

이는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총원 2천30명의 3.9%(지난 해 3.3%)에 해당한다.

전남의 경우 ▲2007학년도 23명 ▲2008학년도 58명 ▲2009학년도 65명 등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전형 별로 보면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 47명이 합격했고 특기자선발 전형 22명, 기회균형선발 11명 등이다. 이중 특기자 전형에서는 전남과학고가 14명을 합격시켜 수시모집 최다합격자를 배출했다.

지역 별로는 목포지역에서 17명의 합격자가 나왔으며 순천 10명, 광양 7명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2009학년도에는 수시와 정시모집를 합해 서울대 합격자가 총 92명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수시에서 15명이나 합격자 수가 늘어난데다 장성고, 능주고, 창평고, 광양제철고 등 상위권 학교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양호해 정시모집 결과도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전체 서울대 합격자 수가 100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남, 목포 등 지역별로 지자체와 각 교육청이 공동으로 어학연수·장학금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육성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의 경우는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가 지난 해 100명에서 올해는 80명선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입시 전략 큰 도움"

광주일보·대성학원 공동 입시설명회 뜨거운 관심

201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도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수능성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일보사가 광주 대성학원과 공동으로 12일 광주시 동구 KT광주정보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2009 대학입시 설명회'에서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은 "이번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는 여전히 수능성적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학이 밝힌 내신성적 반영비율보다 실제 반영비율은 훨씬 적다"며 수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작 1시간 전부터 학생과 학부모, 진학교사 등이 몰려 1천여개의 좌석이 만원을 이루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 실장은 설명회에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각 대학별 수시모집 전형이 달리 이뤄진 만큼 복수합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시기관 배치표에 나타난 대학별 정시모집 인원보다 실제 모집인원이 늘어나게 되므로 수험생들은 이점을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소신 지원하는 것은 한 곳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실장은 올 수능시험을 치른 인문계·자연계 수험생 4명의 성적표를 사례로 들어 지원 가능한 학교와 학과를 소개하는 등 세심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전남지역 자연계 최고 수능 성적을 거둔 고태영(22)씨는 "입시 설명회를 통해 정시모집 지원 전략을 좀더 분명하게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시모집에선 서울대 의대에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박모(53)씨는 "딸이 국립대 사범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표준점수와 백분위의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돼 딸의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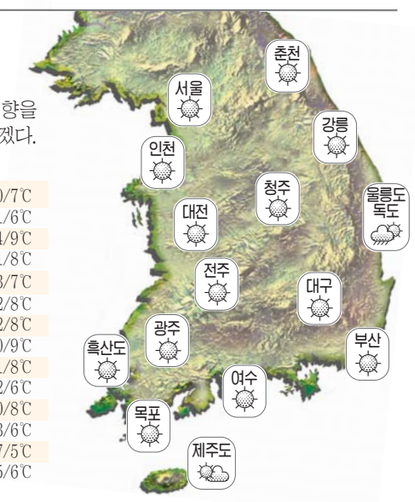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3분 해짐 17시 21분 / 달뜸 05시 21분 달짐 15시 22분

영하 추위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바람이 세게 불겠다.

광 주	맑음	0/7℃
목 포	맑음	1/6℃
여 수	맑음	4/9℃
완 도	맑음	1/8℃
구 례	맑음	−3/7℃
해 남	맑음	−2/8℃
장 흥	맑음	−2/8℃
고 흥	맑음	0/9℃
순 천	맑음	1/8℃
영 광	맑음	−2/6℃
진 도	맑음	0/8℃
전 주	맑음	−3/6℃
남 원	맑음	−7/5℃
흑산도	맑음	5/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1.0~2.5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먼바다	북~북동	1.5~2.5m

	밀물	썰물
목포	12:54 --:--	05:22 18:12
여수	07:50 19:38	01:02 13:5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날 씨						
최저/최고	−1/4	−3/3	−3/3	−4/1	−4/2	−4/2

'BK21' 전남대·조선대 8개 사업비 삭감

1개는 지원 대상 탈락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전국 70개 대학, 495개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3차 연도 연차평가를 13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사업 성과가 부진한 전남대 '예술체육2' 사업단 등 전국 6개 사업단이 내년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전남대 6개 사업단과 조선대 2개 사업단 등 110여개 사업단은 지원비가 삭감된다.

교과부는 대신 최상위로 평가된 전남대 4개 사업단 등 40개 대학, 112개 사업단에 삭감된 사업비 34억4천800만원을 인센티브로 나눠주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골프 지존 언니처럼 물리학 지존 될게요"

신지애 선수 동생 지원양

서울대에 수시 합격 화제

"언니처럼 나도 최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물리학자로 언니와 같은 위치에 서고 싶어요"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의 동생 지원(19)양이 서울대에 합격했다. 경기도 용인시 신갈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지원 양은 11일 발표한 서울대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물리천문학부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지원 양은 연습벌레로 소문난 언니와 외모는 물론 성격까지 쏙 빼닮았다.

고교 3년동안 전교 1등을 한번도 놓치지 않았고, 상대성 이론 다큐멘터리를 본 뒤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밤을 새기도 했다.

"한 침대를 쓰는 언니가 잠들기전에 '기분에 휘둘리지 마라. 꾸준히 하라'는 격려의 말을 항상 해 줬어요. 그때마다 자랑스러운 언니처럼 나도 뭔가를 해내야 한다고 다짐했었죠".

중학교 1학년때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지만 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메워 줬다. 언니가 부족한 과목의 과외비를 대 주었다. 지원 양은 상대성이론 등을 공부해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신지애 선수의 동생 지원(19·왼쪽)양과 신 선수. /연합뉴스